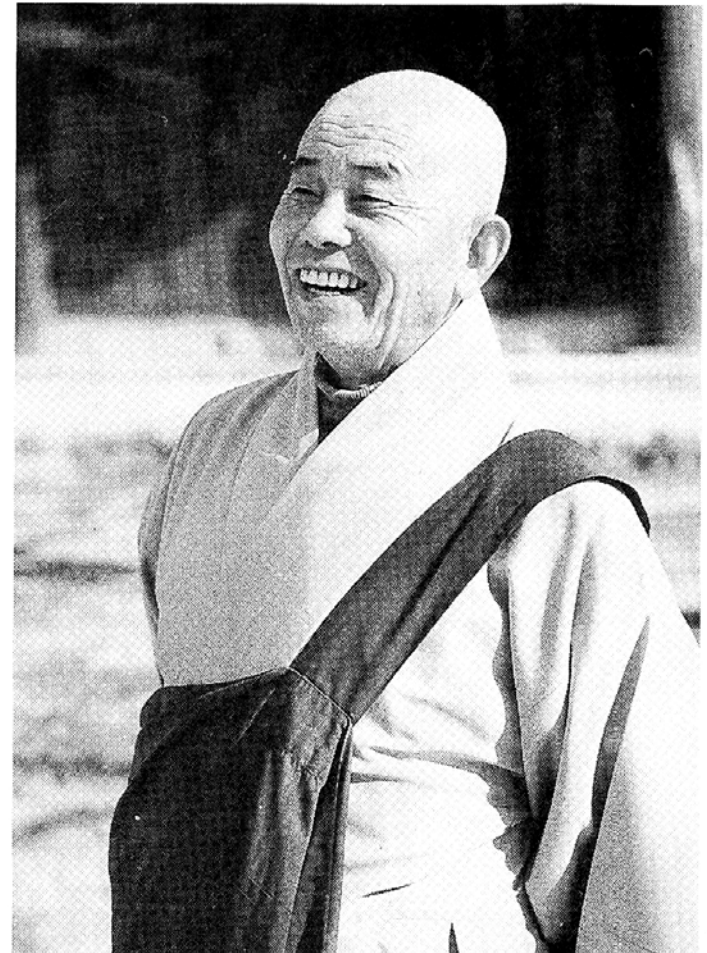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도 흥청망청하면

벽봉스님 (대구 송림사 조실)



- 23년 3월29일(음) 경북 성주생
- 36년 해인사에서 설석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 39년 해인사에서 하동산스님을 계사로 시미계 수지
- 48년 해인사에서 설석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50년 해인강원 졸업
- 67년 경북대 문리대 철학과 졸업
- 70년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82년 대구 보현사 주지
- 92~94년 대구 동화사 주지

“나라 경제 회생시키려면 근검절약 생활화 시급 경제흥망 국민 마음에서 비롯”

이 하겠습니까”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
다.
집집을 주관하던 경찰서 병사주임을
찾아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고학생인데
졸업만 하면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며
“지금 이렇게 전행터에 나간다면 싸움의
욕이 생기지 않으니 학업을 마칠 수 있도
록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사람
이 불교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서
류를 이리저리 확인해보더니만 돈도 연
고자도 없던 나를 어렵지 않게 풀어주었
습니다. 하동읍내 모중학교 선생님을 가
운데 이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덕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절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게 순조로이 풀려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스님은 종단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몸가짐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며
경학보다는 참선을 강조한 선승이셨습니
다. 평소 예절문을 할라치면 “불(불
식) 혹은 “귀신 방귀는 소리”라는 대
답을 하시곤 했지요. 불식 혹은 무(無)라
는 선문답은 다른 큰스님들도 즐겨쓰시
던 말입니다. 효봉스님은 어느해 여름 해
제법문에서 “공문(空門)에 몸을 담은지
25년간 선도 교도 조사도 부처도 이는바
없으니(解也不識 教也不識 祖也不識 佛
也不識) 불식부자(不識二字)로서 스승의

은혜에 보답했다”라고 했습니다. 문자
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높은 수행의 경
지를 적절하게 드러낸 말입니다. 세계 4
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도 “네
가 아는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다는
것이다”고 했지요. 진정으로 진리에 접근
한 자는 모른다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
요?
한번은 석우스님의 명성을 듣고 다솔
사로 한 목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는 석우
스님에게 “무릇 모든 종교는 하늘에 그
근본이 있는데 불교는 왜 하늘을 믿지
않습니까”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스님
은 “기독교는 信天之依天(신천지의천)이
요 유교는 敬天之體天(경천지체천)이며
불교는 透天之用天(투천지용천)이다”고
응수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을 믿음으로
써 하늘에 의지하고 유교는 하늘을 공경
함으로써 하늘을 체득하고 불교는 하늘
을 통찰함으로써 하늘을 활용한다는 뜻
이지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하
늘과 나를 분리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하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안녕품(安寧品) ②

守正道快 수정도쾌
工說法快 공설법쾌
與世無諍 여세무쟁
戒具常快 계구상쾌

이는 곧 애욕을 따르는 것이다.

不當遇所愛 부당취소에
亦莫有不愛 역막유불애
愛之不見愛 애지불견우
不愛見亦愛 불애견역우

바른 도 지키는 것 유쾌하여라
잘 설법하는 것 또한 즐거워라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계율 갖추니 언제나 즐겁다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것을
마음도 마음에 두지 말것을
사랑하는 것은 못보아 괴롭고
미워하는 것은 만나서 괴롭다

依賢居快 의현거쾌
如影隨形 여친친회
近仁智善 근인지자
多聞高遠 다문고원

是以莫造愛 시이막조에
愛憎惡所由 애증악소유
已除縛結者 이제막결자
無愛無所增 무애무소증

어진이 의지해 함께 살아 즐거운 것
괴롭이 한데모여 사는 것 같다
어질고 지혜로운 이 가까이하면
많이 듣고 그 법 또한 고원하리라

그러므로 사랑을 짓지말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생기나니
이미 사랑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는
사랑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

壽命鮮少 수명선소
而業出多 이기제다
學當取要 학당취요
令至老安 영지노안

愛喜生憂 애희생우
愛喜生畏 애희생외
無所愛喜 무소애희
何愛何畏 하우하외

사람의 수명은 아주 적거니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생기고

“사랑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는 사랑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

이 세상 많은 일 다 버리고
마땅히 요점 골라 배워서
놓았을때 이 몸 편안케하라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 생
긴다
사랑하거나 기뻐할 것없으면
근심이 어디있고 두려움은 어디 있으
라

諸欲得甘露 제욕득감로
樂欲滅渴快 기욕멸체쾌
欲度生死苦 욕도생사고
當腹甘滋味 당복감로미

好樂生憂 호락생우
好樂生畏 호락생외
無所好樂 무소호락
何愛何畏 하우하외

무릇 감로와 법 얻고자 하거든
욕심 버리는 말도를 즐겨라
생사의 괴로움을 건너고자 하거든
쿠디 감로 법으로 배를 채우라

좋아하고 즐기는데서 근심생기고
좋아하고 즐기는데서 두려움 생긴다
좋아할 것도 즐길 것도 없다면
근심이 어디있고 두려움은 어디 있
으
라

호희품(好喜品) ①

違道則自順 위도즉자순
順道則自違 순도즉자위
捨善取所好 사의취소호
是爲順愛欲 시위순애욕

貪欲生憂 탐욕생우
貪欲生畏 탐욕생외
解無貪欲 해무탐욕
何愛何畏 하우하외

도를 어김은 곧 자아를 따르는 것
이요
도를 따름은 곧 자아를 어기는 것이
다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나 그것없다면
근심은 어디있고 두려움 어디있으
라
龍眼

바른 뜻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만 취
하면

주간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인터뷰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 대구여러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보혈청신탕'을 특허로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방식초'.
스님은 “원기대보탕은 중국 고대 신선도의 수행자들이 원기를 도우기 위해 먹었던 것으로, 계피 같은 구기자 대추 등 30여 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다”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식초'에 대해서 스님은 “검은 쌀밥에 농주(麴酒)를 붓고 상한버섯, 감초, 생강, 대추, 인삼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면서 “정력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약을 복용하면 대변색이 누렇게 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혈청신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혈압으로 인한 질병이나 신경통,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다.
스님은 이번에 개발 관에하는 3종의 건강식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건강식품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한방병원 설립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 무료예식장과 약초소도 만들어 이웃을 위한 저비용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번에 시연스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다.

■ 내용량 : 60봉지(2個月分)
■ 용법 : 1일 1봉지(이침시후 30분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엄선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한방식초(韓方食醋)

검은쌀(黑米)밥에 농주(麴酒)를 붓고 상한 버섯, 정맥...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시켜주는 현상이다.

■ 내용량 : 1.8ℓ (약0.6도)
■ 용법 : 1일 2스푼(공복시 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보혈청신탕(補血清神湯)

우리나라에서 이봉난성씨의 종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명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強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내용량 : 4.2ℓ (약2도)
■ 용법 :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 가격 : 30만원(2개월분)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91
여러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